

광 관해정사

문화·전법 도량으로 변모

한국전통문화원 건립, 석가여래불 조성

광 최초의 한국사찰 관해정사(법주 반월)가 석가여래불 봉안과 한국전통문화원 건립을 추진한다.

1999년 8월 법어사 해의 포교당 제1호로 광에 개원된 관해정사는 3천 여 평의 부지에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 한국형 사찰 건립과 더불어 석가여래 대불 봉안을 발원하고 관해정사 중앙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광 아가나시의 아름다운 해변에 자리잡은 관해정사는 포교당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민들로부터 거중받은 3천 여평의 대지에 한국식 전통 목조 건축으로 대웅전 및 한국전통문화원 건립을 추

문화를 알리는 전진기지가 생긴 셈이다. 현재 관해정사는 주지 도취 스님을 중심으로 현지 교민들을 위한 기초교리, 주말 참선, 참회기도 등의 신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관해정사 중앙 불사를 위해 법어사 신도회, 연등사 신도회가 발을 벗고 나선 가운데 법주 스님, 수안 스님 등 부산 불교계의 대덕 스님들이 마음을 모아 선사화전을 개최하고 기금 마련에 나서 더욱 관심을 모은다. 광 현지, 부산, 서울 등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선사화전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전체 높이 10m의 석가여래 대불 조성 불사에 전액 사

다도실·서예실 등 체험공간으로 운영

기금 마련 위한 선화전 부산·서울 개최

진한다. 특히 한국전통문화원은 현지 교민 3~4세를 위한 한국어학당과 교민들뿐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한국전통문화원은 한국어학당, 한국도서관, 다도실, 서예실, 전통 악기실 등을 갖추고 한국문화재 전시, 한국문화 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로써 관해정사는 한국 개신교 교회 20여 곳이 교포 종교 활동의 중심이 되어왔던 광에서 한국 불교는 물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중심도량으로 도약하게 된다. 인구 13만 중에 8천명에 달하는 교민사회는 물론 현지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불교와 한국

운된다. 선사화전은 6월 4일부터 12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4층 전시실에서, 15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조선일보사 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전시작품으로는 법주 스님 작품 2백여 점, 수안 스님 작품 120점, 고승 선사화 50여 점, 토경 송호선생 동양화 20여 점이 선보인다.

관해정사 법주 반월 스님은 "광에 사는 불자들은 대부분 일제식민지 역사 속에 조국을 떠나와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라며 "이 분들이 불심으로 민족적 자긍심을 되찾고 타국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의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광 아가나시에 건립될 한국전통문화원 조감도

죽림정사, 용성 스님 기념관 개관



5월30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린 용성기념관 개관법회에서 테이프를 컷팅하는 모습.

근대불교의 선지식 용성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한 용성기념관이 문을 열었다. 장수 죽림정사는 5월 30일 용성기념관 개관 기념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법어사 주지 대성 스님, 광 관해정사 법주 반월 스님,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보광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원광대 조정근 이사장, 정의화 국

5월30일 낙성식 유품 400여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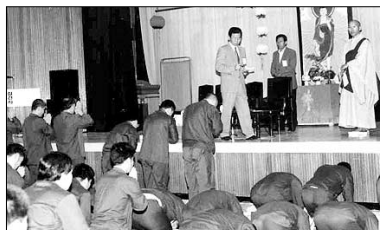
회의원, 유종혁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1천5백여 명이 참석했다.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백용성 조사의 탄생성지를 잘 가꾸어 민족의 번영을 기하고 부처님의 정법안정을 수호함으

로써 만대에 복전을 지으라"고 법문했다. 법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대 선지식이며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신 백용성 조사의 유품을 잘 보존하여 전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백용성 조사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깊이 새기고 선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해남 광보사, '불자에배대회'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질' 경연



교도소 재소자들의 업장소멸과 수형전검을 위한 '불자에배 수형대회'가 5월 27일 목포교도소 강당에서 열렸다.

교도소법회를 지도하고 있는 자황 스님(해남 광보사 주지)이 주관한 이날 수형대회는 재소자 3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50여명이 출전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날 자황 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수행 가운데 절은 업을 참회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가장 좋은 공부이다"고 소개하고 "질을 많이 하기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회에 앞서 재소자들은 자황 스님의 지도로 절하는 요령을 배우고 본격적인 경연대회에 들어갔다. 한편 광보사는 이날 수형대회 상품으로 생활용품과 영치금을 제공했다.

이준엽 기자

한국전 희생자 '화순 위령제'

5·18 김동수 열사 추모제 봉행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세군전으로 희생된 민간인들의 넋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3년 만에 처음으로 5월 30일 화순군 이서면 둔등마을에서 봉행됐다.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상임대표 행법 스님)와 전민특위(대표 임동규)가 주관하고 안심사주지 일진기 후원한 이날 위령제는 역동하게 숨겨진 민간인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독경과 문영수치의 살풀이, 생존자 증언으로 진행됐다.

한편 평화실천 광주전남 불교연대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선대 총학생회와 함께 5월 27일 광주 조선대 김동수 열사 추모비 앞에서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전남도청에서 산화한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제'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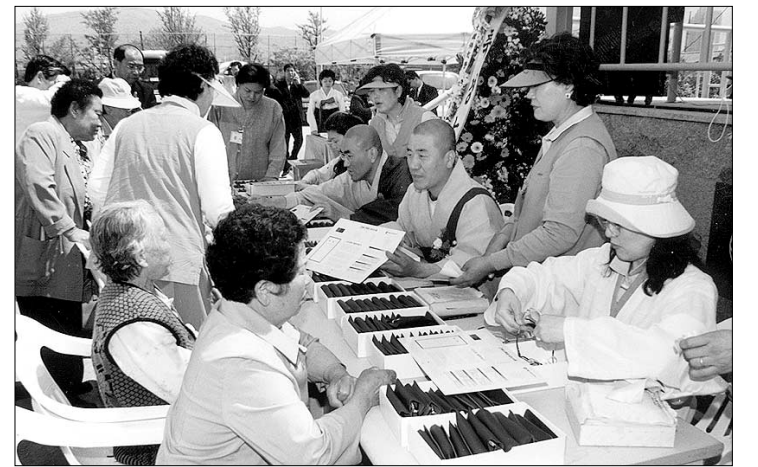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곁에서는...

경기도 광주 불국사

복지불사의 문 항상 열린 도량



지난해 공설운동장에서 가진 '무료 돈보기 나눠주기' 행사에서 주지 가섭 스님과 불국사 '광명회' 회원들이 어르신들에게 돈보기를 나눠주며 사용설명서를 하고 있다.

"부처님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신도시 분당을 가로질러 광주방향으로 향하면 곳곳이 들어선 전원주택 사이로 대형 현수막 하나가 반갑게 맞이한다. 이곳은 지역 주민들의 기도처이자 자비실천 도량인 경기도 광주 불국사(주지 가섭)다. 무엇보다도 불국사는 독거어르신들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민들을 위한 포교활동에 열심이다.

광주지역은 노인복지관 및 관련시설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혜택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자 포교 진력

가섭 스님은 "현대의 사찰은 종교시설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생활과 문화 창출을 복돋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불국사는 사찰내 봉사단체인 '광명회'를 중심으로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며 자비의 법향을 널리 피우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광주시와 연계해 지역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해마다 열고 있다. 올해 행사는 작년 1천여명에서 절반이상이 증가한 1천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관심, 그리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행사는 해를 거듭 할수록 지역민들을 하나로

잇는 지역문화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불국사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한 '무료 돈보기 나눠주기' 사업도 벌이고 있다. 작년에 8천여개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에는 1만여개의 돌보기를 지역 어르신들에게 나눠줬다. 또한 돈보기 보급에 그치지 않고 매년 돌보기를 지급한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새것으로 바꿔주는 철저한 사후 관리로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불국사의 사업은 모두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 다. 즉, 행사도 무리가 없게 운영되고 있다. 불국사의 사업은 모두 지역민들을 위한 것이 다. 즉, 행사도 무리가 없게 운영되고 있다.

포교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것이며, 깨달음에는 불자와 비불자가 나눠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불자를 대상으로 한 것보다 가시적인 효과는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불국사의 이러한 열린 모습은 최근 2-3년 사이에 법회 참가인원을 15여명에서 150여명으로 늘리는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을 부처님 품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는다. 매주 일요일 '외국인노동자 법회'를 진행하는 등 보다 많은 사람, 특히 의지할 곳이 필요한 소외민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사랑, 자비를 전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031)719-0408 김은경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특강

(사)한국불교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 종로구 익선동으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6월 첫째 주부터 개강할 불교강좌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동참부탁드립니다.



정병조 박사의
"불교란 무엇인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임승택 박사의
"불교와 요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최종석 박사의
"법화경"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55번지 현대트레비앙 1층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 7번출구 비원방면 도보5분거리
문의: 02)762-5624-6

www.kibs.or.kr

